

전남 새청무쌀 2만t 출하...GS리테일 유통 본격화

도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원료 활용
전국 7개 공장서 가공 후 매장 판매
대형 유통망 기반 안정적 판로 확보



전남도가 최근 장흥 정남진통합RPC에서 GS리테일 납품을 위한 첫 상차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GS리테일과 협력해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를 도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원료로 공급한다.

전남도는 18일 "장흥 정남진통합RPC에서 첫 상차식을 열고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를 통해 전국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차식에선 전남도와 장흥군, 농협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무쌀 8t이 처음으로 출하됐다. 순천농협도 4월 초 첫 상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급은 순천농협, 정남진통합RPC, 해남

화산농협에서 생산한 새청무 쌀을 GS리테일 간편식 제조공장에 원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2027년까지 총 2만t 규모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전남·광주 인구 3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

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쌀은 전국 7개 공장에서도 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제품으로 가공돼 GS2

5편의점과 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소비 확대에 따라 즉석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남 쌀의 새로운 소비처 확보와 안정적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에 새청무 원료곡을 공급해 '햇반'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전국 140여개 압쇄김밥 매장에도 새청무 쌀을 공급하는 등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전남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식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새청무쌀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신속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쌀 소비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전남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화학비료 대체 탄소저감형 미생물 개발 성과

전남농기원, 화학비료 50% 줄여도 수량 ↑
담체·충진제 등 고경화기술 개발도 추진



가나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미생물 선발과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저감형 미생물 선발 및 이용기술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축산 부문은 27.1% 감축을 목표로 하며, 질소질비료 사용량도 1ha당 149kg에서 115kg 수준으로 약 23%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화학비료를 절감하

농업기술원이 선발한 미생물 AB22-1과 CH2-2-3을 부추 재배에 적용한 결과, 질소질 비료를 25-50% 줄인 조건에서도 수량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현장 실증시험에서는 질소질 비료를 50% 감축했음에도 관행 대비 상품 수량이 13% 증가했다.

또한 토양 전기전도도(EC)와 질산태질소, 유효인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해 염류 집적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화학비료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CH₄) 저감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

다. 메탄 저감 능력이 우수한 미생물 MO24-10과 MO24-20을 선발해 처리한 결과, 메탄 배출량이 3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화학비료 대체 효과에 대한 비교 평가를 지속하고, 메탄 저감 미생물의 상용화를 위해 담체 및 충진제 선발과 미생물 고경화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사군 미생물 배양센터와 연계해 대량 배양 및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 적용 가능한 미생물 기술을 지속 개발·보급해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농협광주본부, 상호금융 강화 현장경영
지역농협 사업현황·방향 등 점검 실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8일 "전남 서구 서창농협에서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심협력(同心協力)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동심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상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현장경영에는 서창농협 본점 및 지점 여·수신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창농협의 ▲상호금융 사업현황과 손익 추이 ▲예수금 및 대출금 구조 ▲연체 및 건전성 지표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여수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연체채권 관리 및 비이자 이익 확대 등 상호금융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 중심의 소통이 이뤄졌다.

이철호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상호금융은 지역농협 경영의 핵심기반이자 지역사회 금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경영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동심협력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전남본부-농가주부모임, 폐기물수거 봉사

'영농後 환경애' 캠페인 통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천

협강진군지부장, 강진 관내 조합장, 강진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방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영농後 환경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농가주부모임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농촌 환경정화 활동이다.

영농 후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등 농



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광일 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현장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앞장서는 것이

농심전심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